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

- 황종연 목사 / 2002.08.09 -

몇 일전 모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종로에 나갔었습니다.

휴무일 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리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세계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은 고운 피부에 예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주변과 조화가 되어 밀물이 몰려왔다 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의 물결은 활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요즘 또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다 입고 싶어하는 그런 옷을 벗고, 티셔츠와 면바지 같은 수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외모는 단정하지만 가꾸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깨뜨려 자신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무엇인가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목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드러 무엇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그들과 언제 한번 살아가고 있던 일상을 멈추고, 함께 앉아서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세계관을 통하여 그들을 보고 느낀 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개월을 목표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벌써 5주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격적으로 깊은 접촉이 있었고 그들의 살아온 시간 속에 있었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누어 알고 있습니다. 미처 몰랐지만 그들 안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도 첫 번째 그룹과 똑같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던 생활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금이라도 길거리에 나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의 꿈과 목표 그리고 일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잘생긴 외모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똑똑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만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일까요? 아니면 많이 아파 보거나, 슬픔을 겪어 보거나, 죽을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돕겠다는 자기 인식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든지,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사랑을 받았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느낀 순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